

또래 여학생 20여명 성착취물 제작 10대 검찰행

광주경찰, 올해 '딥페이크' 8건 중 4건 종결...10-20대 5명 송치 전남경찰도 4건 조사 피해자 24명 파악...각각 TF·전담팀 꾸려

또래 여학생 20여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수법으로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든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을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A군을 검찰에 송치

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같은 학교 출신인 피해자들의 SNS에 게시된 사진을 갈무리한 뒤 '텔레그램 봇'을 활용해 다른 사진과 합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텔레그램 봇은 사용자가 지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피해자 7명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만개의 이미지 파일을 분석해 그가 또래 여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A군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광주경찰은 올해 접수된 딥페이크

의심 신고 8건 중 4건에 대한 수사를 마쳐 10-20대 피의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4건의 경우 아직 수사 중이다. 전남경찰청도 이날 기준 총 4건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각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3명, 1명, 19명, 1명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성착취물이 유포

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각 사건의 피의자 추적 및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경찰은 딥페이크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영상물 범죄 근절 TF'와 전담팀을 각각 구성했다. 이들은 강화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 사안에 대해선 업장 일부 피해자의 경우 성착취물이 유포

보호 및 지원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광주·전남경찰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학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같은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나, 피해를 입거나 영상물을 목격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직장 내 불화' 출근길 상사 살해 50대 긴급체포

완도서도 상해 사건...화순경찰은 이웃에 흥기 휘두른 60대 추적

불화를 겪던 직장 상사를 출근길에 살해한 50대가 긴급체포됐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직장 상사 B(5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평소 가깝게 지냈으나 최근 업무 상 일로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B씨의 출근시간에 맞춰 집 근처에서 대기하다 B씨가 밖으로 나오자 준비해 온 대나무 소제 둔기로 마구 때리다가 흥기로 목을 여러 차례 찌른 뒤 도망쳤다.

주만에게 발견된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범행 후 도주했던 A씨는 3시간여만인 오전 10시55분께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흥기 피습 사건은 전남에서도 잇따랐다. 완도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45분께 완도군 노화읍 자택에서 아버지와 딸 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만류하던 작은 아버지에게 흥기를 휘두른 C(50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손목을 크게 다친 C씨의 작은 아버

지는 소방 헬기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 치료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C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화순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30분께 화순군 사평면 한 고추밭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60대 주민에게 흥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D(60대)씨를 이틀째 추적 중이다. 이웃 간 분쟁에서 비롯된 D씨의 범행으로 다친 주민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D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인데,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그가 농약을 들고 달아난 것을 확인,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주성학 기자



전통시장·사회적기업 이음장터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위한 '전통시장·사회적기업·자매결연 도시와 함께하는 이음장터'가 9일 광주 서구청 야외광장에서 열려 시민들이 물품을 고르고 있다. 이날 명절 장터에는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 5개 점포, 사회적기업 6개소, 자매결연도시 영암·보성군이 참여했다. /김애리 기자

경찰, '이중투표' 권유 신정훈 의원 송치

전남지역 4·10 총선 관련 수사 마무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의혹이 불거져 고발당한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검찰에 넘겨졌다. 나주경찰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정훈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신 의원은 올해 3월 초 나주 동강면에 서고령의 주민 10여명에게 당내 경선 전 화여론조사 참여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이중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권리당원이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기) 끊어져 버린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대 후보 측 고발장 내용과 당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신 의원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전남 경찰청이 담당하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건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나주=정충환 기자

목포해경, 추석 연휴 해상 경비 강화

목포해양경찰서는 9일 "추석 연휴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경비 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경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5일간 해상 경계태세를 강화하며 즉응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귀성(경)객 수송 여객선, 유·도선뿐 아니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항로와 인근 해역에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한다. 무허가 조업 등 불법조업 외국 어선을 대비해 감시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양 주권수호 활동 역시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돈 줄게" 휴대폰 개통 유도 30대 항소 기각

법원, 징역 8개월 1심 유지 판결

휴대전화 개통해주면 현금을 주는 등 불법 영업 행위를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 부

장판사)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

에게 총 6회에 걸쳐 휴대폰 개통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개통의 대가로 현금은 물론 자신이 휴대전화를 팔아 요금까지 대납하겠다고며 중계 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가 구입 후 매각한 휴대전화들이 범죄에는 악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안재영 기자

휴가 중 경찰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현직 경찰관이 휴가 중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여수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남 모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전날 오후 1시께 여수시 돌산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가 중이던 A 순경은 경찰의 주간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순경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